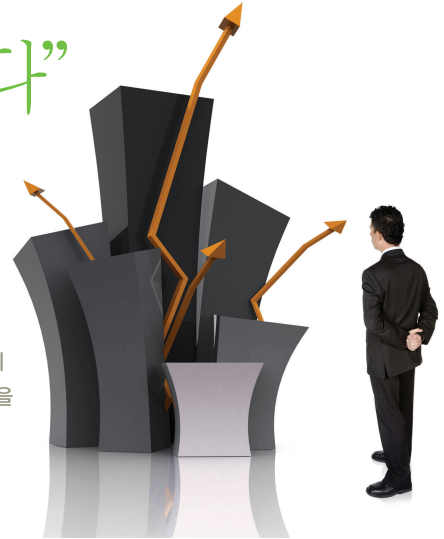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설문 조사

“성장이 우선이지만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성장과 복지 중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58.0%)이 많았지만 세대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30세대는 ‘복지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40세 이상은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77.0%로 부정적인 견해(23.0%)보다 훨씬 많았다. 여기서는 이번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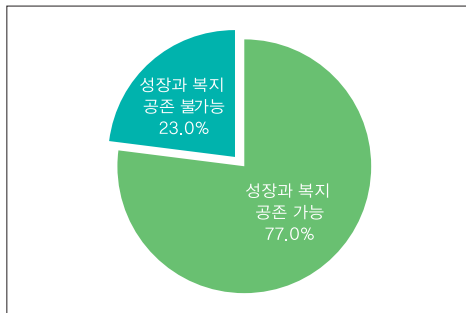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 수 있다」는 질문항목에서는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77.0%,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23.0%로 나타나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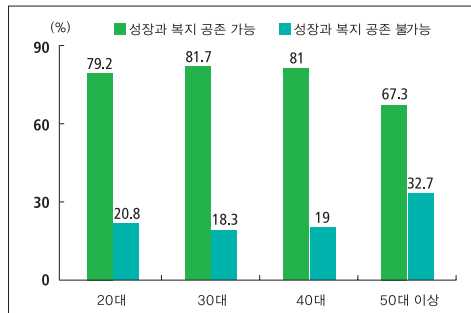
이번 조사결과는 ‘성장과 복지의 공존’에 호응한 비율(77.0%)이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58.0%)보다 많다는 점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성장과 복지’를 성장이 먼저냐, 복지가 먼저냐라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기 보다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선순환’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과 복지 공존에 대한 견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연령별 성장과 복지 공존에 관한 견해



성장과 복지의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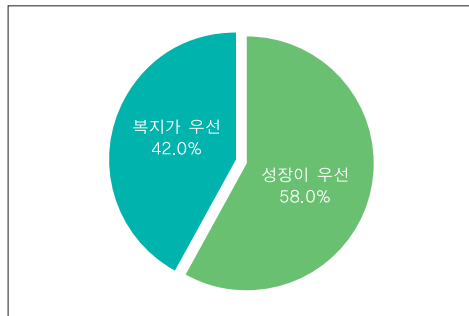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58.0%로 과반을 넘어, 복지국가 및 무상복지 논쟁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는 '복지가 우선'이라는 답변(20대 41.7%, 30대 44.9%)이 더 많았고, 40대 이상은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40대 63.9%, 50대 이상 77.1%)이 많아 세대로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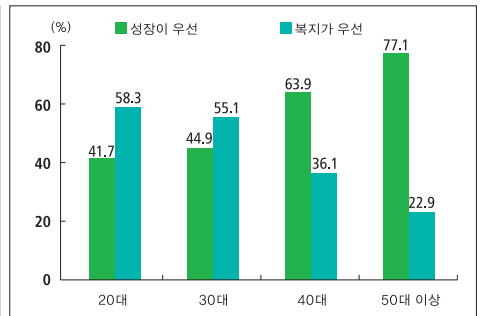
자산규모별로는 부유층일수록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화이트칼라, 학생의 경우 '복지가 우선'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성장이 우선'이라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30세대의 젊은 학생, 화이트칼라,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복지가 우선'이라는 답변 비중이 높았으며, 반대로 40대 이상, 블루칼라와 자영업자, 학력이 낮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높았다.

성장 vs 복지 우선 순위



연령별 성장 vs 복지 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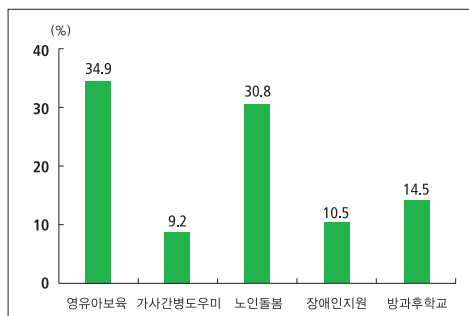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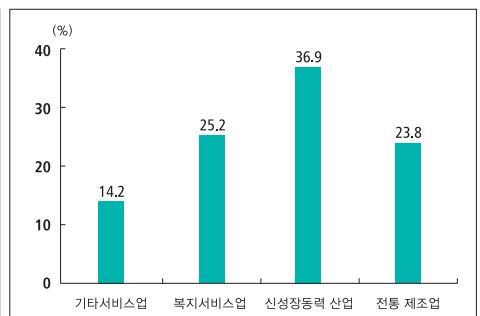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산업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산업은 무엇인지 질문에 본 결과 '환경·바이오·대체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이라는 응답이 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의료·교육 등 복지서비스업(25.2%), 자동차 등 전통제조업(23.8%), 관광·체육 등 기타 서비스업(14.2%)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서비스 가운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는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영유아보육(34.9%)과 노인 돌봄(30.8%)의 응답비중이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방과 후 학교(14.5%), 장애인 지원(10.65), 가사간병 도우미(9.2%) 순으로 나타났다. ▲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



복지 중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서비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